

정업도장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규격 : 4cm x 10cm)



회색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검은 아스팔트 길을 달려 콘크리트 빌딩에서 하루를 보낸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잠시 한 숨을 돌이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여유로운 전원의 삶을 그려보는 것은 도시민들의 정신적 사치일지 모르나. 그러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그와 같은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지난 4월 29~30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서 가진 '흙집과 대안적 삶을 찾아가는 기행'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은' 도시민의 동경이 현실화 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준 희망의 답사였다.

불교환경교육원 '흙집기행' 동행기

▷ 대안교육 실험이 한창인 푸른꿈고등학교. 조환용선생이 2년간의 좌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어라! 불교 생명운동 바람

생태건축가인 정기웅 건축사가 시멘트 대신 흙으로 지은 진도리 마을회관. 무주지역에서 친환경적인 귀농운동을 이끌고 있는 허병섭 목사의 흙집, 젊은 귀농인들이 더불어 사는 광대정 마을, 대안교육 학교로 유명한 푸른꿈고등학교 등등. 평소 생태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참가자들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더듬어 보았다. 또 생태적 순환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골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인 여유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었다.

허병섭 목사의 안내로 불어 본 진도리마을회관 등 이 지역 일대의 흙집들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흙'의 고마움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흙집은 사방의 벽이 숨을 쉬고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됨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허 목사는 "흙은 자기 회생을 통한 생명 창조의 힘을 지녔기에 흙과의 만남은 생태적 삶의 기본이자 최종 목표"라고 강조한다.

공기가 드나들 곳이 없는 밀폐된 공간.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커튼. 땅의 에너지(地氣)를 받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도시인들. 자연의 호흡과 차단되어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정서마저 불안해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허 목사의 흙집 인근에는 10여 가구의 젊은 햇병아리 농군들이 흙집을 모여 산다. 산골치고는 햇살이 많다고 해서 '광대정(光大師)'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몇 년전부터 농사지으며 도시에서 온 30대의 처녀. 총각.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고자 바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35세의 처녀 농군 김근희씨는 "마음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풀은 아직 도시적 사

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서로 상처주기 일쑤였다"면서 자연친화적인 삶으로의 회귀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3년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광대정에 정착해 흙집을 짓고 사는 35세의 동갑내기 전제원·안금순씨 부부. 소박한 삶속에서도 나무(3세)와 작은나무(12개월)에게 천연색 공을 키워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살고 있다.

집안 살림에서부터 건축·농사일. 가족을 기르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배워가며 헤이 한다.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과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유기농업을 한다는 발상은 가난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젊은 농군들은 도시의 아파트가 답답해 하룻밤도 자지 못하는 '흔들'들이 되었으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생태마을'도 멀지 않아 이뤄질 것처럼 보인다.

진도리마을과 광대정 사이에는 또 다른 삶이 진행되고 있는 푸른꿈고등학교가 있다. 학교교육의 붕괴. 입시 지옥 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아닌 '누군가를 죽이는 관계'로 바뀌어 가는 심각한 현실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억하는 교육'을 꿈꾸는 곳. 대안교육을 모색해 온 사람들이 3년간 인공의 생태마을. 예술인 마을을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 재교육에 세운 학교다.

노작교육, 생태·생활문화 교육, 주체·자율·공동·경화교육, 공동체교육, 지역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푸른꿈고등학교는 16명의 교사와 50명의 학생들이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찾고 있다.

조환용 선생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희망과 실망, 갈등과 이해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키워왔다"면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을 모두 살리는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40명의 '흙집기행' 참가자들은 환경운동은 자연관 경만이 아닌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명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즉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관 각성운동, 생활양식 전환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운동에 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환경문제는 '사회 변혁과 자기 개조의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기적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무주=김재경 기자 (jgkm@buddhania.com)

이들 관계'로 바뀌어 가는 심각한 현실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억하는 교육'을 꿈꾸는 곳. 대안교육을 모색해 온 사람들이 3년간 인공의 생태마을. 예술인 마을을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 재교육에 세운 학교다.

노작교육, 생태·생활문화 교육, 주체·자율·공동·경화교육, 공동체교육, 지역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푸른꿈고등학교는 16명의 교사와 50명의 학생들이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찾고 있다.

조환용 선생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희망과 실망, 갈등과 이해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키워왔다"면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을 모두 살리는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40명의 '흙집기행' 참가자들은 환경운동은 자연관 경만이 아닌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명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즉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관 각성운동, 생활양식 전환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운동에 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환경문제는 '사회 변혁과 자기 개조의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기적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무주=김재경 기자 (jgkm@buddhania.com)



▷ 도시 아이들에게 시골의 모든 것은 경이로울 그 자체다. 개구리 알집을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용 어 풀 이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환경·생태·녹색·생명운동이란 개념들은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들 용어는 시·공간적인 배경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환경운동 환경은 인간의 삶과 건강,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한다. 환경보호는 문명의 폐해를 예방하고, 인간의 생활탄편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 역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

생태운동 환경운동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다. '생태'란 말에는 '그물망', '그물코'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파괴되면 결국 공멸한다는 뜻. 생태운동에 이르러 '환경적 관심'은 식물, 생태계, 생물종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연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적 관심'으로 확대됐다.

녹색운동 사회구성원들이 생태위기를 인지하고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집단적 행위. 서구에서 일어난 녹색운동은 생태·환경운동뿐 아니라 여성·인권·대안운동까지를 포함한다. 생태위기의 완인을 기존의 사회구조·이론·세계관에서 찾고, 이것의 근본적 변화를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부터 기존체도와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추구한다.

생명운동 동양적 가치관에서 나온 생태운동의 새로운 이념. 녹색운동처럼 사회전체를 실천의 대상으로 삼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개인의 정체성 회복, 생활공동체 회복과 건설, 패러다임 변형을 위한 문화운동을 기본영역으로 설정한다. 인간 내부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우주)까지 관심영역을 확장했다.



▷ 생태마을 '광대정' 뒷밭에서 구슬땀을 흘려보는 당시 참가자들.



▷ 흙집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되는 생태공간이다. 허병섭 목사가 3년에 걸쳐 지은 흙집 전경.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氣 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인증서 획득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년 불자성공의 실험이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되었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달마도 순금카드

앞면 : 오인법사 달마도 뒷면 : 반야성경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알뜰 권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성경. 사업인영부, 안건순전부, 시흥학예대일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담뱃갑형태로 벗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민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 대립 (5×7.5cm) 20,000원, 소형 (3×5cm) 15,000원이며
▷ 대 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 상반신 달마도 전신상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주박지로 제작하였습니다.

▷ 표주박지 (27×32cm)
▷ 달마도 순금판 크기 (11×16cm)
▷ 일반판액자 150,000원 한정판액자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 달마도 열쇠고리 뒷면은 반야성경 위에 사압전부, 지왕전부, 시범화전부도 있습니다.

앞면 : 달마도 뒷면 : 반야성경

(주)골드타운은 봉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관세수익금의 일부는 불사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